



그분과 함께하는 이야기 (대만b호)

이섬김, 황사랑, 은우, 성안, 세희

28호 2020년 11월 27일



| | | | |
|--------|-----------------------|----|--|
| 카톡 아이디 | 1002lhh | 후원 | KEB하나은행 9900-147-05200 예금주: KPM 이섬김 |
| 이메일 | justfaith74@naver.com | | |

사진 1, 추수 감사 주일 친구초청 예배에서 찬양을 인도했습니다.

사진 2, 대학사역을 위해 중화과학대학 기독교 동아리 오병이어에서 하는 전도모임에 참석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지도교수님과 일주일에 한번 기도모임을 하고 있고 전도를 위한 한국어 공부반도
시작했습니다.

대만은 지금 1년중 제일 좋은 계절을 맞이했습니다. 가끔씩 낮에 조금 덥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그렇게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습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면 단풍을 구경할 수 있다고 하는데 아직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여전히 집집마다 거리마다 사람들 마음속에 불교와 도교의 우상숭배로 넘쳐나고 있는 이 땅에 영적으로도 좋은 계절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슬럼프가 잠시 왔다 지나갔습니다.

2019년 6월에 대만에 와서 1년이 넘는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세밀하신 예비하심에 감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중국에서 할 수 없었던 노방전도도 교회의 허락하신 동역자들과 함께 할 수 있었고 설교도 성경공부 인도도 하며 사역자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슬럼프가 찾아 왔습니다. 친구초청주일에 전도했던 친구가 전날까지 내일보자고 문자를 보냈는데 오지 않았습니다. 몇 개월의 노력의 결과로 이제 한 영혼이 돌아오는구나 기대했던 저에게 그 일은 적지 않은 실망을 주었습니다. "하나님 한 영혼이 돌아오면 하나님도 좋으시고 저도 좋잖아요 왜 허락해 주시지 않는 겁니까?" 조금의 원망도 되었습니다.

그 이후 전도를 나가도 이전과 같이 열심히 적극적으로 사람들을 만나 복음을 전하지 않는 저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미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10명이 넘는데 어떻게 한 명도 교회에 오지 않는가 회의감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몇 주간의 시간을 보내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저에게 한 가지 생각을 주셨습니다. "너는 아직도 니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구나 시간은 내게 속해있다" 제 마음 속에 주신 이 하나님의 생각은 저를 다시 돌아보게 만드셨고 회개하게 하였고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감사한 것은 같이 전도하는 담임목사님과 자매님이 이제 저보다 더 적극적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그 때 교회 오기로 했던 그 청년(샤오쭈우)은 저번주 초청주일 행사에 드디어 참석을 했습니다. 특별히 그 날은 마약 및 여러 중독을 돕는 기관에서 와서 예배 및 프로그램을 인도해 주셨는데 그 청년에게 가장 필요한 내용(알콜 중독)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의 형제 자매들이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함께 했는데 주일 저녁에 문자로 오늘 모임이 참 따뜻했다는 마음을 전해 왔습니다. 그의 직업 특성상 매 주일 교회 출석이 어렵지만 시간이 허락되어지는 대로 교회 예배에 참석하고 신앙생활을 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이번 슬럼프를 경험하면서 정말로 저 자신을 의지할 수 없음을 더 알게 하신 하나님, 모든 때를 정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교회의 분위기가 점점 따뜻해져가고 있습니다.

대만에 와서 현지 목사님과 함께 의견을 나누고 교회 사역을 하면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건강한 교회와 전도, 선교하는 교회였습니다. 아무리 전도를 많이 해도 교회가 새친구를 받을 정도로 건강하지 않으면 새친구가 교회에 적응하며 하나님을 만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현재까지 교인 수가 그렇게 늘어나지 않아 때로 힘이 빠지기도 하지만 감사한 것은 성도들이 이전보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친구초청 행사를 하면서 새친구들을 향하여 적극적으로 다가가서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성도들을 보면서 마음이 참 좋았습니다.

전에 편지에 썼던 꾸오형제는 까오송(대만 남부 도시)에 계시는 부모님이 건강이 좋지 않아 거의 매 주일 부모님 집에 내려 가는 바람에 교제를 많이 못했습니다. 그래도 한번씩 수요기도회 모임에서 삶을 나누고 있고 크리스마스 주일에 세례를 받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 대학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대학교 사역에 대한 마음을 주신 이후 교회에서 소개를 받은 중화과학대학에서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교회 목사님과 함께 대학을 처음 방문하던 날 우연히 예수님을 믿는 친구를 알게 되었고 그 친구를 통해 학교 기독교 동아리를 소개 받았습니다. 그 날 그 동아리를 찾아가 동아리 대표를 만났고 하나님께서 그의 헌신을 통해 어떻게 일하시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는 원래 기독교를 싫어하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극적으로 알게 되고 삶이 변한 사람이었습니다. 주변의 권유를 받아 일반적이지만 방법으로 조금 늦게 대학생이 되었지만 그를 통해 인원이 0명이던 기독교 동아리가 3년이 지난 지금 70명의 인원이 모이는 동아리가 되었습니다. 그는 한국의 두 날개를 대만식으로 변형시킨 싱푸샤오주(행복 소그룹)를 통해 복음을 전했고 하나님 안에서 그들을 섬기며 현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저와 교회 목사님은 그 모임을 배우는 마음으로 참석했고 첫 모임에서 그 동아리를 도우면서 학교사역을 하고 계시는 교수님과 교제할 수 있었습니다. 그 교수님은 우리에게 같이 기도모임을 할 것을 제안하셨고 우리는 기쁘게 받아들여 한 달 정도 일주일에 한번 금요일에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회가 있는 금요일은 한 시간 정도 학교안 전도를 하고 있고 교수님의 추천을 받은 두 명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여학생과 한국어 공부를 저번주에 시작했습니다. 교수님의 도움으로 대학 도서관의 작지만 좋은 공간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었고 한국어에 관심이 있고 이미 한국어를 공부했던 친구들이라 재미있게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한국어 수업을 통해 한국어를 가르칠 뿐만 아니라 그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기를 원하고 부족하지만 저를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알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놀라운 것은 교수님들과 기도회를 마치고 교회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한 학생이 저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나중에 알게된 것은 학교에 찾아간 첫날 동아리 대표와 이야기하던 그 곳에서 저는 몰랐지만 그 학생은 저희를 보고 저희 대화를 들었다는 겁니다. 그 친구는 중국에서 대만으로 유학을 온 중국인 학생이고 대만에 와서 이 동아리를 통해 예수님을 믿고 그의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이제 4학년인 그 친구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사명이 생각이 납니다. -대만에서 사람들을 새워서 선교사로 파송한 다!!!- 그 친구와 만난 버스 안에서의 첫 만남 속에서 하나님은 그 친구를 통한 하나님을 꿈을 꾸게 하시고 약 2주가 지난 어제 그 친구와 학교에서 만나 믿음을 나누면서 함께 전도하고 함께 한 사람을 말씀으로 세워가는 선교의 과정을 함께 해 보지 않겠냐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

친구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얼마든지 하겠다고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결정은 또한 먼저 그
가 양육 받고 있는 기독 동아리와 교회 조장의 동의도 있고 지지도 있어야 하기에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들에게도 같은 마음을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이런 마음들을 동아리 대표와 학교 교수님들과 나누었고 질서 가운데 은혜 가운데 이
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학4학년인 그 친구가(쉬구어짜오 형제) 대학원 원서를 준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2년에서 3년 정도의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 같습니다.
한 가지 한 가지 저의 길 앞에 먼저 행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보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게 하소서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사역을 하면 할수록 알게 되는 것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
이고 동시에 하나님이 하시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원래 생각이 많은 사람이라
고민도 많이 하는 스타일이지만 계속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한 걸
음을 걷게 하십니다. 저는 저의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합니다. 저 또한 너무나 부족
한 사람인 것을 압니다. 그러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을 계속해서 주십니다. 저 개인의
삶도 가정과 자녀들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도, 사역의 문제도 하나님께 맡겨 놓고 하나님이 어
떻게 하시는지 기대하고 바라보며 오늘 저에게 주시는 시간에 주시는 말씀에 따라 순종할 뿐
입니다라고 고백하게 하십니다. 저는 정말 이후에 저의 삶과 저의 사역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
다. 그러나 아는 것은 저를 아시고 저를 부르셔서 사명을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은
가장 선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기를 원하고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며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중고차를 소개 받았습다.

대만에서의 생활은 사실 높은 물가로 쉽지가 않습니다. 차량을 사고 유지하는 것도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한번은 교회 담임 목사님과 대학사역을 위해 대학을 가면서 하나님께서 차를
한 대 허락해 주시면 좋겠지만 아직 허락해 주시지 않네요 라고 서로 웃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에 아는 선교사님을 통해 현지교회 성도님이 소유하고 있던 7인승 봉고를 소개받았습니다. 이
전부터 차가 있으면 7인승 이상차량으로 개인의 필요뿐만 아니라 교회의 필요도 채울 수 있
겠다고 담임 목사님과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하나님은 작은 대화도 다 듣고 응답하신다고 고백
하게 됩니다. 또한 대학 사역 및 이후 허락해 주시는 여러 사역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합니다. 22년된 차량이지만 12만km밖에 운행하지 않았고 차주 되시는 분이 차를 아끼고 관리
도 잘 해서 사용하기에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차 구입 및 초기 비용이 400만원 정도가 들어
갑니다. 이 비용은 개인 생활비로는 지출하기 어려운 금액이라 주께서 후원교회와 개인 후원자
의 후원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만약 후원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교회와 개인 후원자가 있
으시면 기도편지 상단의 후원계좌로 보내주시고 고신선교본부(042-627-8082 손승희 간사
님)에 차량구입목적현금이라고 전화로 말씀해 주시면 현지에서 받아 차량 구입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희 가족은?

저희 두 아들 은우, 성안이는 고2 1학기를 마지막으로 현지 학교를 그만 두려고 합니다. 그
리고 검정고시를 준비해서 큰 아이 은우는 내년 대학입시를 목표로 준비하고 둘째 성안이는
후 내년 대학입시를 목표로 준비합니다. 내년 4월에 검정고시를 치고 8월에 한번 더 시험을

치려고 하는데 특별히 은우는 시간이 조금 부족한 편입니다. 아이들의 진로를 고민하다 갑작스럽게 결정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아이들의 인생길에서도 주인되셔서 인도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막내 세희는 현지 초등학교 6학년 1학기를 다니고 있고 친구들의 집에도 놀러가고 놀러 오면서 행복해하고 부족함이 많지만 조금씩 학업상의 진보도 보이고 있습니다.

집사람도 동네 초등학교 야학에서 3학기째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덩고 습한 여름기간 많이 힘들어 하고 한번은 자고 일어났는데 얼굴 한쪽이 붓고 약간의 마비가 오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몇 시간 후 회복되었고 병원에 문의한 결과 특별한 문제는 없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최근에는 많이 피곤해하고 힘이 빠진다고 합니다. 아내 황영미 선교사의 건강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저희 아버지는 1차 항암 치료가 끝이 났는데 2차 항암을 권유 받으셨습니다. 항암치료를 받으시는 동안 체력적으로 어려움이 있으셔서 2차 항암을 받을 것인지 고민중에 계십니다. 1차 항암치료가 끝나고 식욕은 조금 회복 되셨지만 살이 많이 빠지셨고 다리에 힘이 없으셔서 걷는 것에 힘들어 하십니다. 무엇보다도 이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기도하고 있고 치료과정 속에 하나님의 치료하심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 남향교회의 사역(두 달의 한번 주일설교, 두 달의 한번 기도회 설교, 찬양팀 인도, 성경공부 인도, 노방전도, 심방)을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쁨 부으심으로 감당하게 하시며 교회가 더욱 건강해지며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 새롭게 시작된 대학사역의 문을 계속해서 열어주시고 특별히 한국어수업을 통해 영혼들을 섬기며 예수님께로 인도하게 하시고, 대학 기독교동아리와 교수님들과 아름다운 동역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기독교동아리 학생인 쉬구어짜오 형제와의 만남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한사람의 선교사(선교사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를 세우는 은혜를 허락해 주소서
- 학교를 그만두고 검정고시를 준비하며 대학입시를 준비하는 은우 성안의의 길을 주께서 붙들어 인도해 주시고 세희도 대만에서의 중학교 생활을 감당할 수 있는 준비가 되게 하시고 황영미 선교사의 건강과 저희 어머니, 아버지의 영혼의 구원과 육체의 회복을 허락해 주소서
- 차량구입을 위한 후원금액 400만원이 후원교회와 개인을 통해 순조롭게 채워지게 하소서
- 후원교회와 개인후원자가 늘어나 적자인 후원상황이 회복되어지게 하소서